

# 1960년대 이후 등장한 건축적 담론들과 언어이론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건축, '주름잡힌(folding)' 건축을 중심으로-

정 인 하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 1. 서론 : 연구의 목적과 방법

20세기 후반에 새롭게 형성된 건축적 담론들은 언어이론<sup>1)</sup>의 도입과 테크놀러지의 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 이 가운데 언어 이론은 이 시기 건축의 미학적, 개념적, 의미론적 측면을 지배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현대 건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1960년대 발생한 미국의 포스트모더니즘, 1970

년대 발생한 유럽건축의 유형론, 1980년대에 발생한 해체주의, 그리고 1990년대 주요 이슈로 부각한 '주름잡힌'<sup>2)</sup> 건축들이 대부분 언어 이론을 바탕으로 탄생하였다. 사실 언어 이론은 같은 시기 건축뿐 아니라, 철학, 역사, 문학비평, 사회학, 인류학, 정신분석학과 같은 인문 사회 과학의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후기)구조주의는 언어이론을 다양한 인문분야로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언어 이론이 학제적인(interdisciplinaire) 연구를 진작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언어 혹은 기호를 매개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식이든 역사든 문학작품이든 또는 신화든, 인간활동의 모든 현상을 넓은 의미의 텍스트로 이해하고, 그 텍스트를 지배하는 배후의 숨겨진 형식(구조)들을 찾아냄으로써 그 텍스트에 등장하는 기호들 간의 개별적인 의미작용을 이해하고자 한다.

1) 여기서 언어이론은 폭넓게 정의하고자 한다. 이것은 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생성 변형문법과 같은 현대 언어학, ② 문화기호학, 시각예술기호학, 건축기호학을 포함한 기호학 일반, ③ 언어학에서 파생된 구조주의, ④ 구조주의를 방법론으로 채택한 인류학, 정신분석학, 사회학, 등의 다양한 분야들 ⑤ 후기 구조주의 철학 ⑥ 후기구조주의에 영향을 받은 다양한 이론들, 등을 포함한다고 본다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계속 언급될 것이다). 현재 인문학 쪽에서는 언어이론이란 말을 잘 쓰지 않고, 쓰더라도 앞에서 정의한 것처럼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이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은, 언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붙들어 뻔뻔한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언어 철학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나,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이나 퍼트남과 같은 영미언어철학자들의 작업을 지칭하고 있다. 그래서 비록 앞서 정의한 언어 이론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어 모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건축과 관계되는 부분은 그 중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

2) 이것은 불어로는 pli로, 영어로는 fold 혹은 folding으로 표현된다. 우리말로는 번역자에 따라 주름, 혹은 접힘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스피노자가 사용한 개념을 질 들뢰즈가 최근에 다시 사용하면서 철학적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이것을 응용한 건축들은 다음의 책에 특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Architectural Design, vol. 63 no. 3/4, 1993년 3월-4월

그래서 모든 문화적 형태나 사회현상은 해석되어야 할 내적 기호작용 또는 암호가 된다.”<sup>3)</sup>

현대사회에서 언어이론이 부각되는 것은, 이미지가 범람하고 정보의 전달이 증시되는 정보화시대에서 그것이 다양한 사회, 문화적 현상들을 규명하기에 매우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세기 초부터 시작된 언어 이론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기호의 생성, 기호의 속성, 기호의 전달, 기표와 기의의 관계, 언표 개념, 텍스트와 담론 이론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언어이론은 “인간의 모든 담론적 행위들을 근원적인 차원에서 통합해서 바라 볼 수 있는 그런 논리적 기반(언표장)<sup>4)</sup>을 마련한 것으로

3) 김상환, 해체론 시대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24쪽.

4) 언표장의 개념은 언어이론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언어행위의 기저에 존재하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셸 푸코는 언표(l'énoncé)로서의 언어가 논리학이 다루는 언어, 문법이 다루는 언어, 담화행위로서의 언어와 구분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언표(언표적 장)란 명제 또는 공리적 공간이 그 위에서 마름질될 수 있는 복수적 공간이다. 이 공간은 과학적 담론만이 아니라 예술적 담론, 정치적 담론, 성적 담론, 종교적 담론 등이 그 위에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긴 하지만 결코 등질적이지 않는 그러한 복수적 공간이다. 따라서 언표가 형성하는 이 공간은 미리부터 정해진 일정한 규정성을 지니지 않으며, 언표라는 사건이 파열하는 순수한 우발적 공간이다. 언표를 바탕으로 거기에 어떤 규정성이 부여됨으로써 명제, 문장, 담화행위 등이 형성되는 그러한 질료로서 파악하고 있다.” 언표는 물질에서부터 언어의 문턱으로 넘어오는 최초의 단계로 정의된다. 언표는 분해불가능한, 그 자체로 고립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 자체로 분석가능한 단위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표면을 가지지 않는다. 대신 구체적인 내용들과 함께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게 하는 하나의 기능으로 작동한다. 푸코는 “언표들, 그 바탕위에 어떤 규정성이 부여됨으로써 명제, 문장, 담화 등이 형성되는 그런 질료로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푸코는 그것의 고유한 특성을 규정하는 대신, 그것이 하나의 기능으로 존재하기 위한 조건들을 이야기했다. 푸코가 생각하기에, “하나의 언표는 그것에 상응하는 공간에서 분포하는 특이점들이 방사되어 드러난다. 여기서 어떤 언표가 최초로 발화되었는지, 또 그것이 반복 혹은 재생산되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언표의 규칙성이다. 언표에서 기원의 문제가 별의미없기 때문에 독창성의 문제는 더욱 제기되지 않는다. 언표를

보인다.”<sup>5)</sup> 그 기반은 “일정하게 조직된 담론들의 아래에 존재하면서, 그 담론이 사물, 세계, 존재, 자연과 만나는 곳이다.”<sup>6)</sup>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그 곳에는 “말과 사물, 보는 것과 말하는 것, 볼 수 있는 것과 말 할 수 있는 것, 가시성의 범위와 독해가능성의 영역, 그리고 내용들과 표현들로 구성된다.”<sup>7)</sup> 이 곳에서 근대 이후 인간의 사고에 절대적으로 작용해 온 “주체, 대상, 개념은 본원적 기능, 즉 언표(énoncé)로부터 파생된 기능에 지나지 않게 된다.”<sup>8)</sup>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언어이론은 전통적으로 학문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또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사이의 경계를 제거하려 하였다. 오늘날 건축과 철학, 건축과 예술, 건축과 언어학 사이의 공유공간은 이렇게 해서 태어났고, 그 공간 속에서 지난 30년 동안 건축적 담론들을 지배한 다양한 개념들이 탄생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목적을 수행하려고 한다. 첫번째로 지난 30년간 건축계에 등장하였던 다양한 담론들, 즉 1960-7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의 건축과 1980년대의 해체주의 건축, 1990년대의 ‘주름잡힌(folding)’ 건축들을 하나의 통합된 시각에서 바라보려 한다. 지금까지 이들은 서로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혹은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대립된 경향들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들을 연구한 논문이나 글에서 이들을 하나의 통합된 시각으로 보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최근의 철학적 논

생산하는 특정한 주체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동일한 언표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주체들의 다양한 ‘위치들(places)’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위치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수많은 개인들이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언표는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 누적된다. 그리고 이 누적에 따라 언표는 보존되고, 전달되고, 반복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이정우, 담론의 공간, 민음사, 1994년

5) 이정우, 시물라크르의 시대, 거름, 1995년, 102쪽.

6) 이정우, 앞의 책, 98쪽.

7) 앞의 책, 81쪽.

8) Gilles Deleuze, Foucault (들뢰즈의 푸코, 권영숙, 조영근 옮김), 새길, 24쪽.

의들을 살펴보면 20세기에 등장한 다양한 언어 이론들을 통합된 관점에서 바라 보려는 시도가 많아졌고, 그래서 이 글도 그런 시도들을 건축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사실 앞서 정의한 언표장과 언어이론을 바탕으로 할 경우,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한 세가지 건축적 담론은 차이보다 동일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담론 아래에는 모두 언어이론로부터 발생한 언표들로 구성된 비슷한 계열의 공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거기서 건축의 중요한 가치들인, 형태, 공간, 기능, 도시적 맥락 등은 언표의 형태로 비교적 일관된 질서를 가지는 계열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계열들이 형성하는 담론의 질서는 새로운 언어이론의 유입에 따라 점차로 바뀌어 나갔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 글에서 규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이런 언표계열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특이점과 변곡점, 그리고 담론의 질서가 분기되는 변별점들을 엄밀하게 규명해 보려고 한다. 이들 변별점들은 두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1960년대 이후 건축적 담론을 규정하는 언표계열들의 성격을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리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하나는 건축의 담론들이 분기되는 지점들은 각 언어이론을 구분해주는 변별점들과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 이들을 비교함으로써 과연 1960년대 이후 나타난 건축적 경향들이 어떤 식으로 언어이론을 수용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건축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언어이론도 파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런 시도는 현대건축이 가지는 존재론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런 목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택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언어 이론을 건축에 도입하여 건축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내었다고 평가받는 작품이나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그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언어 이론을 이끌

어 들어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사항은, 인문과학적 지식 속으로 대부분의 건축적 논의들이 매몰되어 버린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수많은 언어이론들이 건축에 도입되면서 많은 개념들이 남발되었고, 그것은 현대건축을 이해하는데 많은 혼란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건축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 글은 언어 이론에 영향받은 건축적 담론의 전반적인 흐름을 엄밀하게 고찰하여 이런 혼란을 바로잡고자 한다. 이 경우 논의의 중심은 언어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건축가들이 구사하는 다양한 언어이론들의 출처와 유래,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가를 정확하게 서술하여 개념상의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한다.

## 2. 언어 이론과 현대건축

언어이론과 현대건축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언어 이론의 발전과정과 각 영역간에 존재하는 차이점과 유사점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한다. 언어 이론은 언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상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언어학이 논의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실제로도 언어 이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들은, 언어학을 바탕으로 도출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 후 이것은 두차례의 확산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학문분야로 전파되는데, 1차적인 확산은 1950-60년 사이에 일어났다. 이 때 언어학은 구조주의를 매개로 철학, 문학, 인류학, 사회학, 기호학, 정신분석학과 같은 인문학의 분야와 건축과 같은 다양한 응용분야로 확산되었다. 우리가 다루려는 1960-7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과 유형론의 주된 논의들도, 바로 이 시기의 언어학적 개념들이 건축에 도입되면서 생겨났다. 따라서 이들 건축에는 언어학과 구조주의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2차적인 확산은 대략 19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데, 이때에는 언어학이 중심이 되지 않고 후기 구조주의 철학이 그 중심에 위치한다. 건축의 경우 1980년대 일어난 해체주의 건축과 1990년대 소위 '주름'잡힌 건축물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소쉬르가 현대언어학을 창시한지 거의 100년이 지나는데도 안 이처럼 언어 이론은 언어학을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로 분과되었고, 매우 방대한 지적 영역을 포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것을 전체로 뭉뚱그릴 경우 나타나게 될 개념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건축과 관련하여 엄밀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는 언어학, 기호학,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섯 가지 분야를 상정해 보고자 한다.

언어 이론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언어학(linguistic)과 기호학(semiotic)의 관계이다. 이 두 분야는 많은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엄격한 구분이 곤란하기도 하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이 둘을 엄격하게 분리하기도 한다. "기호학은 구두(口頭)적 혹은 비 구두적인 모든 의미 있는 체계를 다루는 기호들의 일반적인 과학이다."<sup>9)</sup> 소리와 문자를 포함한 언어도 인간이 만든 기호의 하나라면 당연히 언어학도 기호학의 일부분이 포괄된다.<sup>10)</sup> 이런 관점을 취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에른스트 카시러와 페르디낭 드 소쉬르이다. 카시러는 "언어학이 기호학의 중요한 부분이며, 언어연구는 물리적 관점이 아닌 상징적 총체성 즉, 기호학에 의해 온전하게 해명될 수 있다고 본다<sup>11)</sup>"라고 하였다. 소쉬르도 "언어 그 자체에

서 출발하면서, 언어기호의 차원을 넘어 기호 일반의 문제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다."<sup>12)</sup>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언어학자들과 일부 프랑스의 철학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현대 기호학이 언어학으로부터 최근에 파생된 부분학문으로 보고, 기호보다는 언어가 문화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롤랑 바르트와 에밀 방브니스트가 대표적인데, 그들은 "모든 기호체계들이 언어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는 가장 특권시되어야 하는 기호체계라고"<sup>13)</sup> 생각했다. 이런 주장은 언어가 이중분절(double articulation)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두되었다. "이 능력은 언어를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으로, 언어가 그 자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언급된 말 자체를 포함하여 다른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sup>14)</sup>(가령, TV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은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도 자기자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한다). 따라서 언어만이 기호학적 모형화의 근본 동력이 된다고 믿는다. 촘스키의 경우 언어의 본질을 연구하는데 있어 비언어 기호체계들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현대 기호학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이런 경향은 후기 구조주의 철학에 넘어오면서 더욱 강해져서 기호학은 1970년대 이후 더 이상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1960년대 건축가와 이론가들은 대체적으로 소리와 문자를 대상으로 한 언어학보다는 기호를 대상으로 한 기호학적 입장을 보다 중시한다.<sup>15)</sup> 언어학의 적용에 필수적인 엄격한 분절과 통합이 건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어학과 구조주의는 어떤 관계인

9) 김치수의 4인, 현대기호학의 발전, 서울대출판부, 1998년, 39쪽.

10) 움베르토 에코는 언어학과 기호학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기호학의 한 분야로 언어학을 상정했다. 그에게 기호학은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문화체계를 접근하는데 기호학이 유용한 도구로 이용될 것으로 믿었다. Umberto Eco, La struttura assente (기호와 현대예술, 김광현 옮김), 열린 책들, 234쪽.

11) E.A. Cassirer, 'Structuralism in modern linguistics', Word, 1945, no. 1. 김치수 외 4인, 앞의 책, 116쪽에서 재인용.

12) 앞의 책, 39쪽.

13) 앞의 책, 117쪽

14) Roland Barthes, Elements of Semiology, New York, The Noonday Press, 1967년. 다음의 책에서 재인용;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33쪽.

15) 이런 주장은 다음의 글에서 잘 나타난다. Gillo Dorfles, 'Structuralism and semiology in architecture', in Meaning in architecture (edited by Charles Jencks & George Baird), Barrie & Jenkins, 1969, 39쪽.

가? 현대 구조주의는 언어학에서 그 핵심개념을 도출하였고, 그래서 언어학적인 이론체계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학에서 확립된 구조주의는 그후 언어학의 한계를 넘어 인류학, 정신분석학, 철학 등 다른 인문학 분야로 확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 분야에 맞도록 언어학의 이론들은 수정된다. 언어학이 오늘날 선도학문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구조주의적 방법론이 그 적용 가능성을 넓혀주었기 때문이다. 가령 레비-스트로스는 “언어학의 기표(記標)를 구조로, 기의(記意)를 의미로 치환시켰는데, 이것은 소쉬르의 이론을 야콥슨이란 스승을 통해 받아들여 인류학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다.”<sup>16)</sup> 움베르토 에코는 소쉬르의 기표와 기의의 개념을 받아들여, ‘건축은 하나의 기능을 정확하고도 약호(略號)적으로 가르키는 기의의 기표이다’라고 정의하였다.<sup>17)</sup> 이처럼 구조주의는 많은 학문분야에서 현상들을 바라보는 독특한 방법론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언어학적 이론들과 다른 분야가 학제적으로 접목되도록 해 주었다. 그래서 구조주의와 언어학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을 구분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개념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소쉬르부터 시작하여 프라하 학파와 코펜하겐 학파에 이르는 유럽의 언어학이 주로 구조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브룸필드(Bloomfield)로부터 해리스(Harris)와 같은 ‘분포주의자(distributionalistes)’들, 그리고 이것을 계승한 촘스키같은 미국 언어학자들은 이들과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sup>18)</sup> 이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관점이 중복되지만, 어떤 부분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언어를 바라보고 있다.<sup>19)</sup> 특히 촘스키의 변형생성문법은 구조주의

언어학이 가지는 중요한 가정들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촘스키의 이론을 채택한 피터 아이젠만의 작업은 유럽의 구조주의적 언어학의 개념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구조주의(Structuralisme) 자체도 일반적으로 후기 구조주의(Post-structuralisme)와 구분된다. 이 두가지 사이의 관계는 현대건축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데, 1960-70년대 건축과 1980-90년대 건축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거기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피터 아이젠만은 찰스 젠크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건축이 젠크스가 의미론적인 모델을 가지고 주창한 포스트모더니즘과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sup>20)</sup> 아이젠만이 젠크스에 대해 가졌

19) 언어이론을 도입한 1970년대 건축논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언어학자는 소쉬르(Saussure), 엘름스레브(L. Hjelmslev), 퍼스(C.S. Peirce), 모리스(C. Morris), 오그덴-리처즈(Ogden-Richards), 그리고 촘스키(N. Chomsky) 등이다. 많은 건축적 논의들에서 이들은 무차별적으로 인용되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은 논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호의 속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가령, 소쉬르와 엘름스레브는 기호의 이원성을 주장한다. 기호는 기표(소리나 문자)와 기의(개념),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호의 지시체나 대상물을 제외시킨 것인데, 이 경우 기호는 주제와는 상관없이 자의성을 가지게 된다. 프랑스의 (후기)구조주의자들도 모두 이런 생각을 따르고 있다. 반면 퍼스와 모리스는 기호의 삼원성을 주장한다. 즉, 소쉬르가 주장한 두가지 요소외에 지시대상을 집어넣는다. 퍼스는 이것이 없을 경우 기호로서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만약 지시체를 기호에 포함시킬 경우 기호학에 대한 전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두가지 접근방식은 기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고 생각한다. 소쉬르의 경우 기호가 차이와 유사성에 의해 그 자체로 자율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체의 존재론적인 고려가 거부되고, 의미는 오직 구조화된 그물망 속에서만 실재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의 기호학은 가장 극단적인 구조주의적 기호학이라고 불릴만하다. 이에 비해 퍼스의 경우 기호가 현실속에서 소용되고 인식되는 것을 중시한다. 그래서 그의 기호학은 현상학적 기호학이라고 불린다. 이런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움베르토 에코는 “실제 사물에 대한 지시현상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기호의 이원성을 따르고 있다.

20) Peter Eisenman, An Interview by Charles Jencks, in Deconstruction, Academy Edition, London, 1989년, 144쪽.

16) François Dosse, Histoire du structuralisme I (구조주의의 역사 I, 이봉지, 송기정 옮김), 동문선, 51쪽.

17) Umberto Eco, 앞의 책, 370쪽.

18) 이들 사이의 관계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시오 : Encyclopedic Dictionary of the Sciences of Language (기호학 사전, 이화여대 기호학 연구소, 우석출판사).

던 거리감은, 후기구조주의자들이 구조주의를 바라보며 가졌던 거리감과 유사하다. 물론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사람마다 다르다. 가령, 구조주의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 후기 구조주의를 집어 넣는 사람도 있다. 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구조주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 구조주의 역사를 쓴 프랑수아 도스는 구조주의를 세가지로 구분하면서 21),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를 엄격하게 구분지으려고 하지 않았다. 프랑스 현대철학을 개관한 에릭 매튜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도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후기 구조주의자들로 불리는 철학자들도 사실은 전적으로 새로운 철학의 방향을 모색하기 보다는 구조주의적 적용의 폭을 확대하는데 더욱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서양의 오랜 철학적 전통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계몽주의의 후예인 모더니즘을 공박했던 구조주의적 비판을 그대로 계승발전시키고 있다.”<sup>22)</sup>

그러나 이런 생각에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위 후기구조주의 철학자들이다. 가령 미셸 푸코의 경우, 그의 전형적인 구조주의적 저술로 인정되는 <말과 사물>의 영역관 서문에서 “일부 프랑스의 정신가난 논평가들이 나를 구조주의자로 지목했지만, 나는 구조주의적 분석을 특징짓는 방법, 개념, 핵심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sup>23)</sup>고 항변하였다. 데리다는 이보다

21) 그는 구조주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하나는 인류학의 레비 스트로스, 기호학의 알지스다르 쥘리앵 그레마스, 정신분석학의 자크 라캉이 대표하는 과학주의적 구조주의이다. 두 번째는 ‘법칙’을 탐구하는 첫 번째 구조주의와 비슷하면서도 더 유연하고 유동적이며 다채로운 기호학적 구조주의인데, 그 대표자는 롤랑 바르트, 제라르 쥘레트, 츠베탕 토도로프, 미셸 세르이다. 세 번째 것은 역사화된 구조주의 또는 인식론적 구조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루이 알튀세, 피에르 부르디외,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그리고 더 폭넓게는 아날학파의 제 3세대 역사가들이 포함된다. François Dosse, 앞의 책, 15쪽.

22) Eric Matthews, Twentieth-Century French Philosophy (20세기 프랑스 철학, 김종갑 옮김), 동문선, 242쪽.

23) Michel Foucault, Les Mots et les choses(말과 사물, 이광래 옮김), 민음사.

더 나가서 소쉬르의 언어학이 서구의 이성중심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보고 그것을 해체하려고 하였다. 그가 보기에 “구조주의는 여전히 구조가 지니는 숨은 문법과 통사론의 논리를 발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구조주의는 여전히 로고스의 보편성을 믿는 형이상학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sup>24)</sup> 이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를 엄격하게 구분하려 하였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사상을 구분하려 하는가? 이 둘 사이의 구분은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소쉬르에 의해서 놓여진 고전적 구조주의의 원칙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데서 잘 드러난다. 소쉬르가 제안한 구조주의적 원칙은 세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다. 먼저, 언어의 자의성이다. 이것은 언어기호와 그것이 지칭하는 사물들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 언어의 가치는 오직 차이(변별성)에서만 올 수 있다고 믿는다. 전통적으로 언어기호는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물과 그 대상물의 개념을 동시에 표상한다고 보았으나, 소쉬르는 지시되는 대상물이 이론적 변별성을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탐구영역에서 제외시켜 버렸다.<sup>25)</sup> 그래서 “언어기호는 사물을 명칭에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 관계에 의하여 개념만을 청각영상에 결합시킨다. 그러므로 소쉬르의 기호는 지시 대상을 배제한 기의(개념, signifié)와 기표(소리, 청각영상, signifiant)에 결합시킨다. 바로 이 점에 의해서 기호가 상징과 대립되는데, 상징은 기호와 달리 기의와 기표가 자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6)</sup> 두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체의 부재이다. 이것은 소쉬르의 독특한 언어철학에서 도출된 개념이다. 그는 언어활동의 연구를 두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본질적인 것으로 랑그(langue)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 랑그는 본질상

24)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90쪽.

25) 김성도, 현대기호학 강의, 민음사, 96쪽.

26) François Dosse, 앞의 책, 90쪽.

사회적이며 개인과는 무관하다. 또다른 하나는 부차적인 것으로 언어활동의 개인적인 면, 즉 발성을 포함하는 파롤(parole)을 그 대상으로 한다.”<sup>27)</sup> 그러면서 소쉬르는 연구대상을 과학적 합리화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대상이 랑그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화자, 즉 파롤의 주체는 배제되게 된다. 구조주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주어진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배제하는 것이다. 즉, 주체가 소멸된 익명적인 체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배제된 공시성의 우위를 들 수 있다. 언어를 지배하는 내적 법칙은 오직 단위체들의 상호결합관계를 연구함으로써 복원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소쉬르, 야콥슨, 레비-스트로스까지 계속 이어지는 원칙이다.

그렇다면 후기 구조주의는 이런 원칙들 가운데 어떤 점을 계승하고 어떤 점을 폐기했는가? 이것에 대해 여러가지를 언급할 수 있겠지만, 건축과 관련하여 세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싶다. 먼저, 후기구조주의자들이 가장 반발한 것은 고전적인 구조주의자들이 상정한 구조가, 비록 정합성과 전체성의 균형잡힌 매력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없는 형식주의로 비쳐졌다. 68혁명 때 소르본 대학의 강의실 흑판에 쓰여진 “역사를 만드는 것은 구조가 아니고 인간이다”라는 구호는 이것을 잘 대변한다. 그래서 데리다는, “구조의 윤곽은 의미의 생생한 에너지인 내용이 중성화되었을 때 더 잘 나타난다. 그러나 그런 구조는 황량하거나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거나 재해에 의해 형해(形骸)만 남은 그런 도시의 구조물과 비슷하다”<sup>28)</sup>라고 하였다. 이것은 “구조주의자들은 세계와 주체를 언표장속으로 다 흡수해서 납작한, 수평적인 장 속으로 모든 것을 환원시켜 버렸기 때문에 일어났다.”<sup>29)</sup> 1960-70년대 건축에서도 구조주의가 가

지는 이런 중성적인 형식성은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피터 아이젠만과 알도로시의 건축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결핍의 여지나 우연의 여백을 위한 조그만 공간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통괄하려는 구조주의를 거부한다. 물론 후기 구조주의자들도 기본적으로 구조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나 후기 구조주의에 이르면, 구조라는 것이 구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계를 거대하게 지배하는 무엇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각 문화, 각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는 다원화된 구조주의라고 볼 수 있다. 거대구조가 사라지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다원화된 구조가 되는 것이다.”<sup>30)</sup> 그리고 “구조와 구조 사이의 부분은 구조화되지 않고, 질서화되지 않는 그 무엇, 자연철학적 맥락에서는 카오스가 되고, 인간학적 맥락에서는 욕망, 사회학적 맥락에서는 법 바깥의 영역이 된다.”<sup>31)</sup> 푸코의 경우 담론의 개념<sup>32)</sup>을 통해, 그리고 데리다의 경우 텍스트의 개념을 통해, 질 들뢰즈의 경우 시뮬라크르의 개념을 통해 이런 불연속적이고 다원화된 구조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후기구조주의자들이 보는 구조들은 “순수한 논리적, 수학적 구조, 무게도 운동도 없는 말 그 대로의 구조가 아니라”, 힘의 개념이 들어간 역동적이고 불연속적인 구조를 상징하였다.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우연(들뢰즈의 리즘, 르네 톰의 카타스트로프 이론, 데리

29) 이정우, 시뮬라크르의 시대, 앞의 책, 36쪽.

30) 이정우, 시뮬라크르의 시대, 앞의 책, 37쪽.

31) 앞의 책.

32) 담론은 대화를 위한 기본 조건들을 의미한다. 담론들은 그것이 형성되는 제도와 사회적 실천의 종류에 의해,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 말을 듣는 상대의 위치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다. 모든 제도에는 개인에게 배당된 담론이 있고, 또한 그들은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다. 미셸 푸코는 담론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으로, 금지(interdit), 분할(partage)과 배척(rejet), 진위의 대립(l'opposition du vrai et du faux)과 같은 세가지 사항을 들었다. 이것을 위해 다음의 책을 참조하시오: Michel Foucault, L'ordre du discours(담론의 질서, 이정우 옮김), 셋길; Diane Macdonell, Theories of Discourse(담론이란 무엇인가, 임상훈 옮김), 한울.

27) Saussure, 강의, 30쪽. Jonathan Culler, Ferdinand de Saussure(소쉬르, 이종인 옮김), 시공사, 49쪽에서 재인용.

28) Jacques Derrida, L'Écriture et la différence, 12쪽.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82쪽에서 재인용.

다의 산중), 불연속(푸코의 에피스테메, 들뢰즈의 특이점), 시간(푸코의 계보학), 주체성(들뢰즈의 노마드적인 주체, 푸코의 자기의 테크놀러지)과 같은 개념을 집어넣어서,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각 요소들의 위치와 역할만을 나타내는 정적인 구조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다. 이 점이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경계선이고, 또한 1970년대 건축과 1990년대 건축을 구분하는 중요한 경계선이 된다.

이와 함께 기표와 기의와의 관계도 변하게 된다. 소쉬르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들의 체계가 매우 자의적인 체계지만, 만물들의 질서를 드러내 보여 주리라는 기대를 잃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후기구조주의에서는 기호란 더 이상 확실한 것이 아니며, 의미 역시 유동적이고도 일시적으로 유효된 상태일 뿐이다. 따라서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이을 수 없는 단절이 존재하게 된다. 기호가 가지는 지시성이 거세되면서, 세상은 미끄러지는 기의들과 부유하는 기표들로 가득 차게 된다. 이제 의미는 기표의 배후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표에서 기표로의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고전적 구조주의가 주로 기의(의미, 보편적 구조, 이성)를 중심으로 현상을 이해하는 반면, 후기구조주의는 기표(언표들, 텍스트들, 문자, 사건, 물질의 표면에서 생성되는 시뮬라크르)를 중심으로 이 세계가 설명된다. 또 구조주의자들에게 기호의 표상성은 정의할 수 없는 어떤 것의 현전(presence)과 그것을 대표하는 개념(concept)의 동일성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후기구조주의자들은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제된 타자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보내고, 그들을 복권시키거나(미셸 푸코), 이원적 대립을 해체시키려고 한다(자크 데리다).

주체의 문제도 철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변모한다. 사실 구조주의자들은 주체와 대상을 다 기호체계로 흡수함으로써, 복잡한 사회현상들을 기호로만 파악하려는 한

계를 노출시켰다. 구조주의자들에게 언어의 의미를 발생시키는 주체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반면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기호의 의미를 발생시키는 주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과거의 주체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주체를 언급하되 철저히 구조주의의 입장을 따른다. 즉, 이들 공통적으로 주체의 개념을 “시간과 공간, 역사를 초월하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절대가 아니라, 언어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sup>33)</sup> 이 경우 언어와 사유주체와의 관계는 역전된다. 주체가 이 세계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은 언어를 통해 구조화될 뿐이다.

언어이론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점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와의 관계이다. 이들 사이의 경계를 긋는 작업은 매우 어렵고 미묘하여 명확한 결론에 다다르기가 힘들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이 건축쪽에서 최초로 제기되었고, 또 최근 해체주의 건축가들이, 포스트모던 건축가들과 자신들을 엄격히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기구조주의 이론으로부터 지적인 자양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관계가 그다지 우호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쓴 글들을 보면, 두가지 관점에서 후기구조주의와 뚜렷한 구분을 보여준다. 먼저, 포스트모더니즘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적, 혹은 문화적 구분에 매우 민감하고, 그래서 논의의 많은 부분을 이것에 할애하는 경향이 있다. 1960년대 이후에 명확한 단절이 존재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기산업사회를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문화양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구 모더니즘을 대변하는 아방가르드 운동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재의 문화활동은 이들과 어떻게 연관되고 구분되는지에 대해 매우 상세히 다루고 있다.<sup>34)</sup> 이들에게 모더

33) Eric Matthews, 앞의 책, 214쪽.



니티를 둘러싼 위르겐 하버마스와 프랑수아 리요타르의 논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과 근본적으로 단절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일부 모더니즘 작품에 반항하여 제기된 모더니즘 내부의 반란인지”<sup>34)</sup>가 이 논쟁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 생각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포스트모더니즘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정의된다.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20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문화현상을 그 전의 것과 어떤 식으로든 구분하려 하고, 소위 후기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문화활동을 새롭게 규정하려고 한다. 이에 비해 후기구조주의자들은 이런 구분과 규정에 그다지 커다란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물론 미셸 푸코는 르네상스 이후의 서구 역사를 서술하면서 근대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들, 특히 그 가운데 언어, 신체, 노동의 담론들을 고고학적 방법으로 탐구하지만, 그것은 명확하게 근대라는 역사적 시기를 정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인간의 사고가 어떻게 조직되었는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그 시기를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다. 푸코의 이런 태도조차 매우 예외적이다. 자크 데리다의 경우 더 이상 역사의 문제는 별의미가 없고, 플라톤에서 시작하여 최근의 소쉬르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텍스트의 해석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는 삶, 현실, 역사, 사회를 배제하고 텍스트성의 순수한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자율성만을 수립하려 한다. 후기구조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사유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치중하지만, 시대에 따른 특수한 문화적 양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서로가 부딪치면서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지나치고 있다.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을 구분하

는 또다른 사항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예이론인 반면, 후기구조주의는 구조주의에서 갈라져 나온 철학사조로 주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기자본주의의 경제시스템과 후기구조주의의 철학을 바탕으로 깔면서 주로 문학, 회화, 사진, 건축, 도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미학, 역사, 경제의 문제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다. 문화현상에 주로 논의를 집중하기 때문에 언어이론과 관련하여 문화적 규약과 의미의 전달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은, 짧은 역사지만 풍부한 대중문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문화현상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주로 영미권의 문학평론가, 지리학자, 문명사가, 건축이론가들이 이것의 이론화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후기구조주의는 주요 연구대상이 서구 지성사이다. 후기구조주의자들은 서구의 지적 전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단행하면서, 관행적인 해석으로 인해 모호해진 것들을 명료화하고 있다. 물론 후기구조주의자들도 다양한 예술분야에 관심을 표명했다. 가령 미셸 푸코에 의해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이, 질 들뢰즈에 의해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이, 롤랑 바르트에 의해 마르셀 프루스트의 글이, 데리다에 의해 아르토와 말라르메의 글이 집중적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철학적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하기 위해 동원되었을 뿐 논의의 초점은 여전히 서구의 형이상학에 맞추고 있다. 여기에는 주로 정치한 언어이론으로 무장한 프랑스 철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 후기구조주의 철학이 미국에 흡수되면서 미국의 정서에 맞게 변형되었고,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선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후기구조주의는 분명 프랑스의 지적 풍토에서 성장한 것이다. 그래서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기존의 현

34) 이것에 대해서는 이합 핫산의 구분이 대표적이다.

35) Davi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희, 박영민 옮김), 한울, 68쪽.

상학, 구조주의 언어학, 정신분석학과 같은 서구의 형이상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고 있어서, 이들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데리다가 사용한 '흔적'의 개념은 좋은 예이다. 데리다는 이것을 훗설의 현상학을 비판하면서 제기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해체주의 건축가들은 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그 자체의 의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오래된 지적 전통이 없다. 그래서 미국의 해체주의는 "데리다의 이론을 결정적이고 완전한 것으로 이해하고 해체론을 도구적으로 수용하고 있다."<sup>36)</sup> 이 때문에 미국의 해체론은 프랑스 철학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전통적인 이성중심적 사유에 대해 무차별적인 공격이 가하는데, 이런 현상은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논리적 맥락을 엄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에 형성된 모든 개념들을 해체의 대상으로 몰아 부치고 있는 것이다. 가령, 미국의 해체주의 건축가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보편적인 문화현상의 일부가 아닌, 1960-7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특이한 양식 혹은 경향으로 본다. 특히 전통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대중들에게 어필하려는 로버트 벤츄리나 마이클 그레이프의 건축을 매우 냉소적으로 바라본다. 피터 아이젠만은 르네상스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이 표상(representation), 이성(reason), 역사(history)라는 세가지 '허구'의 영향아래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가진다"<sup>37)</sup>고 보고, 이들을 전복의 대상으로 본다.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을 대변하는 찰스 젠크스는 로버트 벤츄리 이후 세계건축의 흐름을 포스트모더니즘과 레이트모더니즘이라는 이원적인 구도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한다.<sup>38)</sup> 그에게 포스트모더니즘

은 모더니즘에 대항하여 1960년대 이후 전개된 건축, 문학, 영화, 시각예술 등의 모든 문화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해한다. 이 두가지 시각 중에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는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 후에 알 수 있겠지만, 언어이론을 기반으로 할 경우 쟁크스와 아이젠만의 시각은 대립적 관점이 아니다. 즉, 건축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언어가 가지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 의미의 전달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한 반면, 해체주의 건축은 주로 기표와 기의를 완전히 분리하고(이것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와 같은 전통적인 경우들을 해체하는데서 잘 드러난다) 불연속적인 기표의 움직임만을 다루고 있다.

### 3. 건축에서의 의미론과 통사론

언어이론이 건축에 적용되면서, 최초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라고 생각한다. 먼저 건축이론분야에서 이에 관한 여러 가지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도시현상을 구조주의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글들을 발표한 때가 1966년이었고,<sup>39)</sup> 또 움베르토 에코가 1968년에 <구조와 부재(La Struttura assente)>를 발표하면서 건축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말까지 구조주의 이론은 세계 건축계를 풍미하였고, 이를 반영한 듯 많은 책들의 제목에서 언어(language)라는 말은 유행처럼 사용되었다.<sup>40)</sup> 이처럼 언어이론

Architecture, Academy, 1991년.

39) 구조주의와 언어학과 관련하여 발표된 주요 논문들은 주로 이태리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1967년부터 영미권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G.K. Koenig, *Analisi del linguaggio architettonico*, Firenze, 1964년; Christopher Alexander 'A City is nat a tree', in *Architectural Forum*, 122, no.2, 1965년 5월; George Baird, 'La dimension amoureuse', in *Arena, Architectural Association Journal*, 1967년 6월; Umberto Eco, *La Struttura Assente*, Bompiani, 1968년; Charles Jencks & George Baird, *Meaning in Architecture*, Barrie&Jenkins, 1969년

40)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Christopher

36) Vincent B. Leith, *Deconstructive Criticism* (해체비평이란 무엇인가?, 군택영 옮김), 문예출판사, 143쪽.

37) Peter Eisenman, 'The End of the Classical : the end of the beginning, the end of the end', in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edi. by Kate Nesbitt), Princeton Press, 1996.

38) 이것은 그가 쓴 다음의 책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Charles Jencks, *The Language of Post-modern*

이 건축계의 전면에서 등장하게 된 데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존의 건축에 대항하여 새로운 건축세계를 찾아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당시 근대건축은 관료들과 부동산개발업자들을 위한 한갓 천박한 세트로 전략해 버렸다. 자본주의는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만큼 근대건축의 언어와 이미지를 흡수하는데 만족하였다. 근대건축가들이 주장한 본래의 논의들은 이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사회는 대규모로 근대건축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되었지만 사회는 근대건축이 갖는 고유한 가치들을 빼앗아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근대건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건축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생겼다. 언어이론이 이 시기에 건축계를 풍미하게 된 것은, 이데올로기로 전략해 버린 근대건축에 대항해서 그것이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근대건축이 가지는 의미론적인 특성이다. 1970년대 건축가들은, 1920년대 근대건축가들에 의해 지어진 건축물들이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기능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대신 기존의 관습적인 언어체계를 파괴하고, 탈 의미적인(meaning-free) 건축을 추구하였다는 점을 간파하였다.<sup>41)</sup> 기존의 모든 신호체계를 거부하고, (르 꼬르뷔제의 표현대로라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형태의 탐구가 근대건축의 가장 본질적인 사항이 된 것이다.<sup>42)</sup> 바로 이 점 때문에 근대건축에는

의미 전달의 문제가 항상 잠재되어 있었고, 전후 근대건축이 대량복제되면서 그 문제가 보다 심화되었다. 그래서 1960년대 건축가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모더니즘과는 다른 포스트모더니즘을 주창하게 된다. 그들은 의미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1960-70년대 언어 이론의 도입을 통해 건축적으로 도출된 성과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로버트 벤츄리, 마이클 그레이스, 찰스 무어 등이 제기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의미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임스 스틸링, 알도 로시, 오스발트 웅거스 등이 제기한 유형론이 이 논의를 통해 이론적 토대를 갖게 된 것이며, 마지막으로 피터 아이젠만이 노암 촘스키의 이론을 바탕으로 독특한 주거모형을 도출한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브루노 제비와 존 서머슨이 언어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과거 역사적 건축물들을 재해석한 것이나, 혹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도시를 패턴 랭귀지로 분석한 것은 중요한 성과로 꼽을만하다.<sup>43)</sup>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팔목할만한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두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 먼저 근본적으로 건축의 속성이 기호학적으로 해석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두 번째는 구조주의적 언어 이론 자체가 건축존재의 새로운 가치들을

에 근거하는 것이다.

43) 이 시기 건축과 언어이론의 관계와 대해서 많은 건축이론가들이 언어학인 모델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중에서 브로드벤트는 화용론, 의미론, 통사론의 세가지 언어학적 모델로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이 당시의 건축적 성과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Geoffrey Broadbent, 'A Plain man's guide to the theory of signs in architecture,' in ,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 그리고 Mario Gandelsonas은 이 가운데 의미론적 차원과 통사론적 차원 만으로 피터 아이젠만과 마이클 그레이스의 건축을 분석하고 있다. Mario Candelsonas and David Morton, On reading Architecture in Sign, symbols, and architecture(ed. Geoffrey Broadbent), John Wiley & Sons, 1980.

Alexander, A Pattern Language, 건축, 도시 형태론, 한근배 옮김), 태림문화사 ; John Summerson, The Classical Language of Architecture, MIT Press, 1964년 ; Bruno Zevi, The Modern Language of Architectur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8년 ; Niels Luning Prak, The Language of Architecture, Mouton, 1968년 ; Charles Jencks,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Academy, 1977년.

41) Juan Pablo Bonta, Architecture and its Interpretation (건축의 표현체계, 서유석 옮김), 기문당, 27쪽.

42) 르 꼬르뷔제는 일차적 감각과 이차적 감각을 구분하였다. 일차적 감각은 순전히 형태와 색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이다. 반대로 이차적인 감각은 개인의 유산이나 문화적 배경

발생시키는데 그다지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호학을 건축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은, 인류학이나 기타 학문처럼 다양한 건축현실 뒤에 있는 보편적 구조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찾더라도 그것이 건축적 창조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았다. 그것은 건축이 담론보다는 실재적인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움베르토 에코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만약 기호학이 명확한 기호체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적 현상들을 기호체계로 간주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기호학에 가장 거세게 도전하는 분야가 바로 건축일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이 기호학에 저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건축물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기능을 갖는데 있다”<sup>44)</sup>. 두 번째로 언어학적 이론들을 건축에 끌어들이는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애초부터 건축의 의미를 발생시키는 기능, 공간, 구축체계, 장소성에 대한 깊이있는 탐구와는 거리를 두었다. 그것이야말로 엘리트주의를 지향한 근대건축의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보다는 주로 의미론적이고 통사론적인 언어의 조작을 통해 가볍고 대중적인 건축양식을 추구하였다. 이 경우 건축은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지만, 본질적으로 새로운 건축을 발생시키기가 힘들었다. 그것은 구조주의 언어학이 언어 내용에 담긴 역동성을 거세하고 형식만을 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새로운 건축적 가치들을 탐구하지 않고, 기존 언어가 가지는 의미만을 되풀이하며 소진할 경우,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의미가 거세된, 속이 텅빈 기호의 껍데기 뿐이다. 이런 공허함은 마이클 그레이스, 로버트 벤츨리, 알도 로시, 피터 아이젠만 등이 구조주의 언어학을 바탕으로 설계한 1960-70년대의 건축 뿐 아니라, 동시대의 건축 이념에 바탕을 마련한 찰스 젠크스의 글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거기서 등장하는 다양한 건축경향들의 분류와 그것으로 구성된 표들은 거기서 역사를 추진시키는 역동

적인 힘은 거세된 공허한 기호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한다.

#### 4. 텍스트의 산증

1980년대 초반을 계기로 건축적 담론이 바뀌게 된다. 그전까지 담론을 형성한 의미론과 통사론이 더 이상 건축적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 이론적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197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을 대체할 새로운 건축이론이 요구되었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후기구조주의가 건축계의 주된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런 변화는 연속적이기보다는 불연속적이다. 그것은 1960년대 말 롤랑 바르트나 미셸 푸코와 같은 철학자들이 구조주의에서 후기 구조주의로 인식의 방향을 급진적으로 바꾼 것과 비슷하다. 이 시기를 경계로 생겨난 변별점은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와 거의 유사하다. 즉, 로버트 벤츨리나 알도 로시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의와 기표사이에 일치된 관계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도 기의와 기표사이에 완전한 일치를 가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들 사이의 관계를 고의적으로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기의와 기표사이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기표만으로 건축 담론을 구성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라고 생각한다. 또 다양한 건축현상 뒤에 공통되고 일관된 구조나 문법에 기초한다는 구조주의적 생각도 버리게 된다. 이 때문에 유형론은 더 이상 설득력있는 담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부터 이전 시대를 지배한 사고들은 해체의 대상이 그것이 건축의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 틀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이 건축계에 유입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질 들뢰즈 등의 작업이 활발히 진행된 시기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이고,<sup>45)</sup> 1970년대 중반에 이

44) Umberto Eco, 앞의 책, 357-8쪽.

45) 후기구조주의와 관련된 주요저작들이 이 시기를 전후하여 대거 선보이게 된다. 몇가지 예를 들면,

르러 미국 동부대학의 문학이론가들이 데리다의 해체론을 중심으로 이것을 받아 들이게 된다. 폴 드만(Paul de Man), 조셉 리들(Joseph Riddel), 힐리스 밀러(J. Hillis Miller) 등은 해체론에 대한 많은 양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그 성과는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동부에서 활약하던 건축가들이 이들의 작업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그것의 건축적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건축가는 피터 아이젠만이다. 그는 촘스키의 변형 생성문법을 건축에 도입하여 매우 독특한 주거형태를 만들어 냈지만, 1977년부터 그가 한 작업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한동안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가 보기에 “자신의 이전 작업이 이론적으로 분절되지 않았고, 또 너무 형식주의에 치우쳤다는 것이다.”<sup>46)</sup> 그는 1985년부터 해체주의를 주장한 자크 데리다와 함께 파리의 라 빌레트 공원 현상설계에 참여하게 된다. ‘코랄 워크스(Chora L Works)’<sup>47)</sup>라고 부르는 이 때의 작업을 통해 그는 데리다의 철학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이런 그의 태도는 당시 그의 연구소에 머물렀던 베르나르 추미, 렘 콜하스, 자하 하디드 등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점차 해체주의는 세계 건축계의 주된 이슈로 부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크리스토퍼 노리스와 앤드류 벤자민과 같은 이론가들은 철학적 논의들을 건축적으로 전환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건축가들은 후기구조주의 철학의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한 것일까? 이것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데, 1980년대는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논의의 초점이 된 반면,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질 들뢰즈의 철학이 보다 관심을 끌게 된다. 이 가운데 데리다의 해체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해체론의 대상은 철학 그 자체이다. 이때 철학이란 좁게는 필로소피아란 이름으로 태어난 이론적 사유이고, 넓게 보아서는 서양문화의 근간, 서양성의 중심점이다. 플라톤에 의해서 철학적 탐구계획이 확립된 이후 장구한 세월이 흘렀고, 그 동안 수많은 학파가 생겨났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해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표피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서양 사상의 심층은 단일한 패러다임에 바탕을 둔 단일한 시대를 이룬다. 이런 사상사적 장기 지속을 유지해 온 은폐된 원리와 무의식적인 전제들을 발견하고 그 지배력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전략, 그것이 데리다가 말하는 해체론이다. 근대의 출발점인 데카르트는 확실성을 구하기 위해 회의 가능한 모든 것을 부정했다. 마찬가지로 데리다는 해체불가능한 것을 구한다. 이를 위해 해체가 가능한 모든 것을 해체한다. 데카르트의 회의 불가능자가 자아의 존재였다면, 데리다의 해체불가능자는 차연, 흔적, 보충, 유령, 등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이름을 취한다. 그들은 노자의 도(道)처럼 고정된 의미가 없고, 개념적으로 표상할 수 없다.”<sup>48)</sup> 이런 점에서 해체는 어떤 목표나 과제를 상정해 놓고 지향해 나가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일종의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면서 수행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같은 정의는 후기구조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건축가들에게는 의아스럽게 들릴 법하다. 즉, 건축과는 전혀 상관없는 건축적 논의들이 왜 건축가들에 의해 한동안 그토록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졌느냐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

-Michel Foucault, *Les mots et les choses* (Gallimard, 1969), *L'Archéologie du savoir* (Gallimard, 1969), *L'Ordre du discours* (Gallimard, 1971)

-Jacques Derrida, *De la Grammatologie* (Minuit, 1967), *La voix et le phénomène* (PUF, 1967)

-Gilles Deleuze, *Différence et répétition* (PUF, 1968), *Logique du sens* (Minuit, 1969)

46) Charles Jencks와의 인터뷰, in *Deconstruction* (ed. Andreas Papadakis), Academy, 1989, 141쪽.

47) Jeffrey Kipnis and Tomas Leiser, *Chora L Works*, The Monacelli Press.

48) 김상환, 자크 데리다의 해체론,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05/199905190418.html>.

기 위해 우리는 해체주의가 기반하는 몇가지 기본 생각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데리다의 해체론은, 텍스트, 차연, 흔적, 에크리튀르, 산중, 대리보충의 개념들이 서로 엉켜 있어서 그 개념을 총체적으로 다루기가 매우 힘들다. 먼저, 논의의 바탕을 이해하기 위해 텍스트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자. 이것은 롤랑 바르트, 자크 데리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등에 의해 1960년대에 집중적으로 제기된 개념으로, 테리 이글턴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조주의에서 후기구조주의로의 이행은 곧, 부분적으로는 작품에서 텍스트로의 이행을 의미한다<sup>49)</sup>라고 표현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텍스트 개념은 대부분의 해체주의 건축가들의 논의에서 가장 저변에 깔려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들의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원래 텍스트의 개념은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분석 대상이 되는 문학작품을 일컫는 말이다.<sup>50)</sup> 그렇지만 이것은 후기구조주의자들에게는 작가와 독자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한 의미생산의 장이 된다.<sup>51)</sup> 이것과 관련하여 주목할 사람이 바로 롤랑 바르트이다. 그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문학기호학의 강력한 주창자였으나, 1960년대 후반 그는 다른 프랑스의 주요 지식인들처럼 해체론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저자의 죽음>이라는 글을 통해, 그는 텍스트와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후기 구조주의적인 관점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저자’와 ‘독자’의 전통적인 개념을 수정한다.”<sup>52)</sup> 과거에 작품(l’oeuvre)은 분명한 저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저자는 작품 뒤의 유일한 목소리, 언어의 유일한 주인, 생산의 유일한 기원으로 인정되었다. 이 경우 어떤 작품을 정확하게 읽는다는 것은 저자의 의도를 가장 충실하게 복원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전통적

인 비평방식은 전기적, 역사적, 심리적 방법을 동원해서 그 저자가 만들어 놓은 기원으로 되돌아가서, 미리 존재하는 실재(혹은 진리)를 되찾는 것이 된다. 그러나 바르트는 이런 “문학의 진리가 미망이라는 것과, 거기에는 언제나 무수한 차이들의 파괴적인 놀이만이 있을 뿐이라”<sup>53)</sup>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저자와 독자와의 전통적인 관계를 전복시킨다. 즉 우리가 읽은 글의 의미는 그 저자의 본래 그것과는 상관없고, 읽을 당시 독자의 일시적인 충동이나 기분, 욕망에 따라 자유롭게 넘나들며 해체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크 데리다는 이런 텍스트의 개념을 세계로 확장시킨다. 이 경우, 그 세계는 무한한 텍스트로 나타난다. 모든 것이 텍스트화된다. 이것 뒤에는 아무 것도 없고, 빠져 나갈 길도 없다. 텍스트 뒤에 숨겨져 있는 구조를 밝혀 내려는 것이 구조주의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이 라면,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텍스트의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il n’y a pas d’hors de texte)”라고 주장하였다. 이 선언은 철학계에 일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데리다에게 이 세계는 기원도 없고, 특별한 중심도 없으며, 단지 텍스트 사이의 차이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경우 서구의 형이상학이 보여왔던, 자폐성, 모순, 대립, 배제는 소멸된다고 보았다. 또 거기에는 절대화되거나 실체화된 것도 없고, 주체와 객체의 구분도 없다. 동일성을 전제로한 자기정체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데리다에게 텍스트는 단지 일련의 변별적 흔적들로 이루어진 그물망이다. 그 텍스트는 보편적인 단 하나의 텍스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 새겨져 있다. 텍스트는 자기 속에서 또 다른 텍스트와 접목되어 부유한다.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sup>54)</sup>은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를 침범하여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전의 텍스트에 새로운 텍스트가 침투하면서 기존의

49) 테리 이글턴, 문학이론입문, 창작사, 1986년, 171쪽.

50) 김성곤 편역, 탈 구조주의의 이해, 21쪽.

51) 최현무, 기호론과 문학텍스트, 예술과 비평 3권, 268-9쪽.

52) Vincent B. Leith, 앞의 책, 146-7쪽.

53) 앞의 책, 140쪽.

54) 이것은 우리말로 여러 형태로 번역되었다. 상호텍스트성, 간텍스트성, 텍스트상호성 등은 모두 불어의 intertextualité, 영어의 intertextuality를 번역한 것이다.

흔적들을 구분짓던 경계, 틀, 한계선은 무너뜨린다. 경계의 침범, 혹은 경계의 넘쳐흐름은 새로운 운동, 주름(pli), 습곡(plissement)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곧 새로운 지형을 탄생시키게 된다. 산중(dessémination)은 원래 씨앗이 여기 저기에 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데리다는 산중이 이런 텍스트 사이를 가로질러가는 생기는 차이들의 무수한 파괴적 놀이로 보았다. 그것은 진리의 결정불가능성을 의미하며, 의미의 통일성을 추구한 모든 철학에 반(反)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라는 텍스트는 적어도 두 가지 상이한 것들이 통합되고 다시 모순으로 나누어지고, 또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나는 다른 것들이 놀이를 벌이고 있는 다른 것들과의 공존, 즉 데리다의 표현처럼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런 놀이의 관계가 새로운 계기를 또 만나면 또다시 전과같이 반송과 반송의 반복운동을 시작하기에, 그것은 끊임없는 자리이동과 새주름만들기와 같다. 주름만들기는 다른 것들과의 차연의 상호의존과 얽힘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sup>55)</sup>

데리다의 해체론은 너무 난해하고 모호하여 이런 단편적인 설명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그의 철학자체보다는 건축가들의 눈에 비친 해체주의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건축가들이 해체론을 건축에 끌어들이면서 전에는 볼 수 없는 몇가지 특이한 현상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크리스토퍼 노리스는, “해체주의 예술이라는 용어를 의미있게 쓰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 세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시각적이거나 텍스트적인 요소들을 병치하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흔히 쓰는 무작위적인 플라쥬 방식이 아니라, 그 요소들 사이에 어떤 비평적, 질문조의 주고받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그러한 작업의 결과, 작품을 보거나 읽는 이로 하여금, 미학적 형식에 관한 담론들의 배후에 숨어 있는 사회의 규제항들을 적극 해독해내는 행위를 유발해야 한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보기와 읽기를 통해 해체는 근대건축의 주제와 테크닉들에 대해 양날적인(doube-edged,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고, 두쪽을 모두 수용하는, 그래서 두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은 양식상의 복수성을 가지면서도 일관된 논점을 잃지 않는 것이다.”<sup>56)</sup>

피터 아이젠만에 따르면, ‘모더니즘 건축은 전통건축과 결별하면서 해체의 미학 원리를 중심개념으로 사용했다’<sup>57)</sup>고 본다. 즉, 형태와 기능, 구조와 장식, 형상과 배경, 수식과 추상의 변증법적인 개념이 근대건축을 지배한 것이다. 그 때문에 근대건축이 고전적 전통과 단절을 피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허구이고, 오히려 고전건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인간, 자연, 신에 대한 관계가 불변의 토대로부터 불확실한 것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만이 변하지 못한 것을 두고, 아이젠만은 건축이 가지는 특별한 속성 때문이라고 한다. 즉, 건축은 현실과 존재의 구조를 만드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중력에 대해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해체주의 건축가들은 그동안 자명한 인식되어 온 모든 것들이 의심받는 마당에, 기능, 구조, 기하학, 공간, 프로그램, 형태적 의미와 같이 그동안 건축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채택되었던 주요 개념들이 그 유효성을 의심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데리다의 이론을 수입한 미국의 해체론은 기존에 형성된 일체의 개념들을 해체의 대상으로 몰아 부치는 경향이 있는데,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들의 건축에는 사실 이런 주장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이전까지 많은 건축경향들이 출현했지만 벽체와 기둥을 고의로 빼뜨리게 경

56) Christopher Norris and Andrew benjamin, What is Deconstruction?, Academy Editions, 1988, 31쪽. 다음의 책에서 재인용. 이종건, 해체주의의 해체, 발안, 1999.

57. Peter Eisenmann, <Blue line text>, Deconstruction, 앞의 책, 150쪽.

55)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383-390쪽.

사지게 하거나, 바닥판을 들어올려 건물이 무너질 것같은 느낌을 주는 경우는 없었다. 그것은 건축의 본성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해체주의를 주창하는 건축가들은 이런 것들을 별 생각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전제되어온 건축적 담론들이 철저히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건물의 형태구성에서 조화로운이나 자연스러움보다는 전혀 이질적인 요소들의 접목이나 충돌, 전혀 예기치 못한 우연적 요소의 돌출과 부유함, 구조적 안정성의 파괴와 같은 극단적인 건축형태가 등장하였다. 전혀 이질적인 맥락을 가진 형태들이 한 건물 내에서 부유하는 것이다. 동일성이 아닌 차이에 의해 건축형태가 정의되면서, 한 건물 내에는 마치 데리다가 이야기하는 상호텍스트성과 산종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텍스트들의 놀이가 일어났다. 피터 아이젠만, 베르나르 추미, 자하 하디드, 스티븐 홀(Steven Hall)과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가 최근에 지은 건물들에서 이런 특징들은 잘 나타난다.

##### 5. 건축의 주름(le pli)

1990년대 건축계에서 회자되는 주요 개념이 바로 질 들뢰즈의 ‘주름’ 개념이다. 그 전의 해체주의 건축과 비교하여, ‘주름잡힌’은 그 전만큼의 변별점이 없다. 둘다 후기 구조주의 철학이라는 공통된 기반 위에 건축적 담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또 불규칙한 언표 계열을 담론의 주요 특징으로 함께 상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몇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크 데리다와 질 들뢰즈가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틀의 차이와 유사하다.

후기구조주의 철학을 대표할만한 철학자로서 우리는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질 들뢰즈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언어이론을 공통적으로 기반으로 하지만, 그것에 접근하는 방향이 다르다. 미셸 푸코는 언표장으로서의 접근이 주로

사상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역사를 통해 지식과 권력을 형성하는 언표들의 배치들을 파악하려 하였고, 모든 논의들을 언표장으로 이끌어 들었다. 그래서 들뢰즈는 푸코를 고문서학자로 비유하였다. 이에 비해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주로 문학비평에 의존하는 듯하다. 물론 그의 주요 관심이 현상학과 구조주의의 비판에 있었지만, 그것이 텍스트를 통해 접근되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준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노리스는 “해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문맥을 감안할 때, 그 운명은 철학보다는 문학비평에 더 관련되어 있다. 철학계쪽으로 눈을 돌려 보면, 영미철학 본류에 속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또 그의 텍스트들을 주의깊게 읽으려 하지도 않는다”<sup>58)</sup>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질 들뢰즈가 기반하는 것은 문학이나 역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철학이다. 질 들뢰즈는 스피노자, 나이프니츠, 흄, 니체, 베르그송 등을 통해 서구 형이상학을 재검토하고, 여기서 자신의 독특한 사유체계를 이끌어냈다. 들뢰즈가 쓴 책들을 읽으면서 다른 후기구조주의 철학자들과 구별되는 것은, 시간과 공간, 물질, 존재와 같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주제들이 다시 등장한다는 것이다. 데리다의 해체주의처럼 기존의 철학에 주석을 다는 일종의 해석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상상하는 세계관을 새롭게 구축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그의 철학이 우리가 앞서 정의한 언어이론에 기반한 것인지에 의문이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의문은, 그가 모든 현실을 기호를 통해서 설명하려는 보편적 기호학을 거부함으로써 더욱 증폭된다.<sup>5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을 대변하는 ‘차이의 존재론’은 언어이론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고 본다. 그는 이 세계가 상호교차하는 힘의 복수성이 이루는 끊임 없이 생성하는 세계이며, 어떤 존재도 안정된 동일성을 누릴 수 없는 변화의

58) Christopher Norris, Jacques Derrida(자크 데리다, 이종인 옮김), 시공사, 17쪽.

59) Ronald Bogue, Deleuze and Guattari(들뢰즈와 가타리, 이정우 옮김), 셋길, 203쪽.



세계로 본다. 따라서 이 세계는 동일성이 아닌 차이로 이해된다. 이런 관점은 언어를 매개로 한 다른 후기구조주의자들의 생각과 거의 유사해 보인다. 물론 그가 이야기한 차이는 소쉬르적인 언어학과는 달리 힘의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훨씬 역동적이다. 그에게 “세계는 기호들이 다른 기호들을 지시하지만 하는 그런 텍스트가 아니라 기호들이 힘의 징후가 되는 그런 힘의 그물망이기”<sup>60)</sup> 때문이다. 또한 그가 플라톤주의를 전복하기 위해 내세운 시물라크르<sup>61)</sup>라는 개념도 다른 후기구조주의자들이 제시한 언표와 유사한 점이 있다.

질 들뢰즈는 많은 저작들을 통해 다양한 개념들을 제시하는데, 이 가운데 건축가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주름’이다. 이것의 개념은 자크 데리다도 사용한 개념이지만, 질 들뢰즈가 1988년에 쓴 <주름-라이프니츠와 바로크>라는 글에서 매우 명료하게 나타난다. 물론 그것의 전반적인 내용은 들뢰즈가 1969년에 발표한 <차이와 반복>, <의미의 논리>에서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들뢰즈가 주목한 라이프니츠와 스피노자의 ‘표현(expression)’<sup>62)</sup>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름’의 개념은 질 들뢰즈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적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그는 과연 어떤 의미로 이것을 사용하였을까? 그에 따르면 이것은 데카르트적인 시공간 개념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세계관이다. “데카르트는 사물을 무한하게 분리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체를 가정하고, 그래서 무한하게 작은 점을 가정했다. 그에게 선은 이런 점들이

일정한 관계를 가지며 위치하는 것이고, 이 세계는 이런 최소한의 실체들이 좌표축을 따라 뭉쳤다가 흩어지는(회박하고 밀집되는) 곳으로 이해되었다.”<sup>63)</sup> 데카르트식이라면 완벽하게 빈공간도 상상할 수 있다. 이런 데카르트의 가정은 근대과학의 기초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이것에 기초하여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와 스피노자는 이런 생각에 반대했다. 현실에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사물들은 실제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것은 여러 가지 힘에 의해 구부러지고 접혀있는 것이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데카르트가 주장한 연장(extension)의 개념은 평면적인 것을 따라 움직일 뿐, 깊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유된다는 것이다.

질 들뢰즈는 데카르트보다는 라이프니츠의 생각을 따른다. 그에 따르면, “사물은 무한하게 작은 구멍이 많은, 혹은 동굴모양의 텍스처로 되어 있다. 거기에는 빈곳이 없다. 그것은 보다 작은 다른 동굴을 포함하는 동굴이다. 아무리 작더라도, 각각의 물체들은 증기같은 흐름에 의해 관통되거나 둘러쌓여 있고, 불규칙한 통로가 뚫려 있는 세계를 포함한다. 우주의 전체는 마치 다양한 흐름과 파동이 존재하는 ‘사물들의 연못’과 같다. 가장 정제된 사물이라서 완벽하게 유동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텍스처를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데카르트의 잘못된 현실에서 분리된 각 부분들이 정말로 분리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실제로 분리된 두가지 사물은 분리될 수 없다. 그들은 사물의 응집력을 결정하는 주위 힘의 압력에 의해 단지 그렇게 보이는 뿐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다. 하나의 신체는 단단함의 강도를 가질뿐더러, 유동성의 강도도 가진다. 보트가 빠른 속도로 물위를 지날 때, 물살이 대리석과 같은 강도를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치이다. 라이프

60) 앞의 책, 59쪽.

61) 들뢰즈에게 이 개념은 핵심적이다. 이것은 현대철학이 반(反)플라톤주의라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이다. 시물라크르라는 말은 사건과 거의 동일한 말이다. 순간적인 것, 지속적인 속성을 가지지 않는 것, 자기 동일성이 없는 것, 이것을 시물라크르라고 한다. 이정우, 시물라크르의 시대, 앞의 책, 44쪽.

62)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Gilles Deleuze, Spinoza et le problème de l'expression, 1968, Minuit: 이것은 다음에서 부분적으로 번역되어 있다. <http://sh.hanarotel.co.kr/~armdown/spinoza>.

63) Gilles Deleuze, The Fold-Leibniz and the Baroque, the Pleats of Matter, in Architectural Design, no.102, 1993년 3월-4월.

니끄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신체는 주름을 형성하는 응집된 부분들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무한히 작은 부분들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점성(粘性)을 항상 지닌 무한히 작은 주름들로 나뉘어진다고 보았다. 이 연속된 미로는 해변의 모래처럼 독립된 점들로 분해되는 선이 아니다. 무한한 주름들로 나뉘지고, 구부러지는 힘에 의해 분리되고, 서로 겹쳐지는 주위에 의해 결정되는 종이장과 흡사하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은 점이 아니라 주름이다.”<sup>64)</sup>

이렇게 세계를 주름으로 이해할 경우, 데카르트적인 시공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들이 나타난다. 먼저, 하나의 기호, 대상, 존재는 두가지의 대조적인 그러나 상보적인 방식으로 표현된다. 이 두가지 방식이란 무언가를 감싸는 것, 포함하는 것, 또는 함축하는 것(이들은 모두 *impliquer*라는 불어의 동사에 포함된 의미들이다)과, 무언인가를 전개하는 것, 펼치는 것, 설명하는 것, 명백히 하는 것(이들은 모두 *expliquer*라는 불어의 동사에 포함된 의미들이다)이다. <sup>65)</sup> 이 경우 주름에서 나타나는 접힘과 펼침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단일한 과정의 서로 다른 부분인 것이다. 그들은 수축-팽창, 당김-풀어짐의 쌍으로 표현될 뿐이지, 데카르트의 주장처럼 밀집과 희박의 개념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두번째로 “세계가 무한하게 주름잡혀 있다면, 모든 곳에서 ‘사물에 담긴 정신(*spirit in matter*)’이 발견된다. 그것은 무한한 부분으로의 분할을 증거할 뿐아니라, 힘의 보유하는 동안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의 발생-소멸을 말해준다.”<sup>66)</sup>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차이를 가지고, 항상 ‘이것’이라는 특이성을 가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실속에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된 중성적이고, 추상적인 공간속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는 바로 그 장소와 자리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공간의 개념의 변화는 건축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건축이 데카르트적인 공간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이프니끄는 데카르트처럼 모든 세계를 기하학적으로 환원시켜서, 각각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 그 측정치를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정량화시키는 대신에 질적인 것을 수학에 반영하여 장소와 위치를 관계 지우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가 본 세계는 “데카르트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시작과 중심이 없고, 대신 시원이 복수화되고 탈중심화된다”<sup>67)</sup>.

그렇다면 건축가들은 이런 주름의 개념을 건축적으로 어떻게 이해한 것일까? 이것은 두가지로 이해되는데 먼저, 아이젠만은 주름의 개념이 변화시킨 시공간적인 세계관에 주목하였다. 즉,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 온 데카르트적인 시공간 개념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임을 밝혀졌고, 따라서 지금까지 데카르트적인 그리드를 사용한 전통적인 공간개념은 새로운 것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sup>68)</sup>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가 최근에 발표한 <레브스톡(Rebstock) 프로젝트>에서 이에 대한 생각이 나타난다. 이것은 매우 평범한 지들롱(주거단지)의 배치안을 지형에 맞춰 주름을 준 것이다. 그에 따르면, “건축에서 주름은 바로 대지의 면과 관계하면서 나타난다. 거기서 주름은 특이성으로 나타난다. 주름은 결코 시공간에서 동일하지 않다. 그것은 차이의 물리적 조건이다. 주름진 면은 유클리드적인 기하학이 아니라, 위상기하학적인 면이다. 여기서 위상기하학적인 사건들과, 하나의 형상 속으로 용해된 대지와 형상들이 이 ‘주름’속에 머무는

64) 앞의 책.

65) 여기서 포함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impliquer*는 주름(*pli*)을 내부로 감싸는 것이고, 설명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expliquer*는 주름(*pli*)을 외부로 펼치는 것이다. 이외에도 들뢰즈는 복잡화( *complication*), 복수화(*multiplication*)이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모두 주름을 의미하는 *pli*가 포함되어 있다. Ronald Bogue, 앞의 책, 67쪽.

66) Gilles Deleuze, 앞의 책.

67) 이정우, 담론의 공간, 앞의 책, 100쪽.

68) Peter Eisenman, *Folding in Time*, in *Architectural Design*, vol. 63 no. 3/4, 1993년 3월-4월.

것이다.”<sup>69)</sup>

그레그 린(Freg Lynn)은 아이젠만과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아이젠만이 여전히 해체주의적 시각에서 ‘주름’의 개념을 바라 본 반면, 그는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 하였다. 그에 따르면, 주름잡힌 건축이란 “건축적 형태의 발전이 내적인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까지도 부드럽게 통합하는 것으로”<sup>70)</sup> 이해했다. 이것은 단절보다는 주름잡히는 것으로, 내밀한 요소들 사이의 절대적인 일치와 결합을 주장하기 보다는 자유로운 요소들 사이의 일시적이고, 집중적이며, 국부적인 연결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경우 주름잡힌 건축은 근대건축,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1980년대를 풍미했던 해체주의 건축과는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근대건축은 모든 건축의 논리가 내적인 논리에 결정되었다. ‘형태가 기능을 따른다’는 아포리즘은 그 단적인 예이다. 또 근대건축은 차이보다는 내적인 동일성이 강조되었다. 기계로 환원되지 않는 모든 건축적 요소들을 배제하였다. 이처럼 자기 동일성을 너무강조한 나머지 타자를 배제했고, 이것이 매우 무미건조하고 획일적인 건축물들을 대량생산해 냈던 가장 큰 이유였다. 이에 비해 해체주의 건축은 근대건축과는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향하였다. 근대건축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개념들과 방법들을 의심하고 거부했다. 건축형태에 있어서도 이질적인 요소들을 서로 대립시키고 충돌시키는 방법으로 차이를 극대화하였다. 그렇지만 주름의 개념을 사용할 경우 이런 극단적인 두 진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차이의 관계를 고정된 시각으로 억압하거나, 그들의 대립성을 극대화시키는 대신에, 끈적거리고, 유연하며 부드럽게 접히는 혼합물 속으로 비관계적인 요소들을 통합시키는 것이다.”<sup>71)</sup> 또 침투에 의해 주

위맥락, 건물의 프로그램과 구조 등이 우연적으로 연결된다.

이런 ‘주름’의 개념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건축가는 프랑크 게리(Frank O. Gehry)라고 생각한다. 비록 그는 철학을 통해 영감을 이끌어내는 건축가가 아니어서, 들뢰즈의 ‘주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건물을 설계했지만, 그레그 린이 설명한 건축의 ‘주름’ 개념과 가장 잘 부합되는 건물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런 주장은 최근에 ‘주름’개념을 가지고 설계한 아이젠만의 몇몇 프로젝트<sup>72)</sup>가 프랭크 게리의 작품이 매우 유사하다는데서 잘 알 수 있다. 게리가 최근에 설계한 빌바오의 미술관은 “유연한 금속재로 직사각형의 전시실을 뒤덮고 있는데, 이들은 이 건물에 인접한 도로, 다리, 빌바오강, 중세도시 등과 조응하고 있다.”<sup>73)</sup> 그러면서 그것은 기존의 데카르트적인 시공개념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공간을 내포하는 동시에 주름같은 형태들을 외부로 펼쳐 보인다. 또 그의 작품은 기하학적인 법칙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름잡힌 곡선을 통해 우연성과 비결정성을 가진다. 프랑크 게리는 철학보다는 예술을 통해 이것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

이외에도 게리의 건축은 ‘바로 이곳’이라는 위상기하학적인 개념과도 잘 부합된다. 그는 건물이 위치할 대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각각의 장소에 맞는 특이한 건축형태를 표현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그의 초기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실 프랭크 게리의 건축은 아이젠만처럼 정칙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보다는 로스엔젤레스에 세워지는 건축물에 매우 적합한 전략으로 설정되었다. 그에게 도시와 장소는 아이디어와 영감이 잠재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그는 거기서 복잡하고 파편화된 형태를 보았고, 거칠고 조잡한 재료들이 주는 풍부함을 발견했다. 오목볼록한 금속판, 울타리용 철망, 베니어 합판, 아스

69) 앞의 책.

70) Greg Lynn, *Architectural Curvilinearity*, in *Architectural Design*, vol. 63 no. 3/4, 1993년 3월-4월.

71) 앞의 책.

72) 이것의 예로는 Arizona Convention Center, Staten Island Institute of Arts and Sciences를 들 수 있다.

73) Greg Lynn, 앞의 책.

팔트지 등으로 이루어진 지저분한 현실 속에서 그는 현대예술에서 발견했던 비슷한 감수성을 느낄 수 있었다.”<sup>74)</sup> 또한 계리의 작품이 모든 곳에서 가능한 보편적인 건축보다는, 대지와 건축주의 요구에 따른 특수성을 지향한 것도 이같은 여건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의 건축은 건물의 프로그램에 따른 개별적인 요구들, 즉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그 속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창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지의 맥락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가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 없이 개별적인 체험이 중시된다. 이것은 들뢰즈가 주장한 <차이의 존재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집은 하나가 아니라 10개의 체험되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형태는 이런 요구와 체험이 구체화될 때 나타나고, 그것은 건축가에 의해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그자체로 그냥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 6. 결론

지난 30년 동안 형성된 세가지 건축적 담론들, 즉 1960-7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과 1980년대의 해체주의 건축, 1990년대의 ‘주름잡힌’ 건축과 언어이론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먼저, 이들 세가지 건축적 담론들이 하나의 계열을 형성하며 독특한 질서를 만드는데 언어이론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즉 이 세가지 담론 아래에 있는 언표장에는 언어이론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결론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1960년대 이후의 현대건축에 하나의 통합된 시각을 부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워낙 다양하여, 이들에 대한 통일된 시각을 이끌어 낼 수 없었는데, 언어이론을 이용할 경우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물론 언어이론가 건축적 담론들로

로 그대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들사이에는 일정한 격차가 존재한다. 그것은 건축이 가지는 고유한 자율성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들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한다. 1960-70년대 포스트모더니즘과 유형론은 1930년대에 개발된 기호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에 힘입은바 크다. 1980년대 이후의 해체주의 건축과 ‘주름잡힌’ 건축은 1960년대 말의 후기구조주의 철학에서 주요개념이 도출되었다. 여기서 존재하는 20년의 시간차이는 건축과 철학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의 간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언어이론과는 달리 건축은 구체적인 물질로 구축되고, 또 현실속에서 기능하기 때문에, 언어이론을 바탕으로 한 담론들이 현실 속으로 편입되는 순간 격렬한 마찰이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것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 건축이 대두되면서 나타났던 상반된 반응들을 상기하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언어이론 내에 존재하는 변별점들이 건축에서 비슷한 추이로 나타났다.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를 구별하는 변별점은 세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는 구조의 역동성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기표와 기의와의 관계이고, 세 번째는 주체의 문제이다.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 사이의 관계와 비슷하게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 건축 사이에도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 이들은 기표와 기의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의와 기표사이의 관계를 조작하되, 이들 사이가 일정한 끈으로 묶여 있음을 인정한 반면, 해체주의 건축은 이들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기표만으로 건축적 담론을 구성하려 하였다. 이 경우 기표들은 데리다가 이야기한 텍스트의 산중처럼 매우 불규칙하고, 이질적인 것으로 분산시켰다. 주체의 문제도 마찬가지로인데, 두가지 담론 모두 건축가의 기원적이고 저자로서의 입장을 배제하려 하였다.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매우 대중적인 모티브를 도입하려 했고, 해체주의 건축은 흔적들을 주요 건축개념으로 상정하였다.

74) 앞의 책.

그러나 해체주의 건축에서 여전히 문제로 남는 부분은 이 주체의 익명적인 처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해체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이젠만이 또 하나의 양식을 만들어냈을 분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해체주의 건축과 '주름잡힌' 건축 사이에는 자크 데리다와 질 들뢰즈 사이에 존재하는 세계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데리다는 기존의 철학에 대해 해석학적인 관점을 취한 반면, 들뢰즈는 새로운 형이상학의 틀을 제시하려고 한다. 즉,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건축에서도 그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해체주의 건축은 기존의 건축적 담론들을 철저히 부정하고, 그들은 중성화시켜서 새로운 문맥속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기존의 담론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주름잡힌' 건축 형태와 공간에 있어서 새로운 차원을 제시한다. 그것은 데카르트적인 공간이 아닌 위상기하학적인 공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텍스트의 산종이 아닌 주름처럼 접힌 건축의 형태로 그것을 표현하였다.

# A Study on the Relation of the Theory of Language and Architectural Discourses Appeared after 1960

Jung, Inha  
(Hanyang University)

## ABSTRACT

Since 1960, the change of architectural trend was dominated by two factors ; the one, the introduction of theory of language (including semantic, syntactic, pragmatic, linguistic, semiotic, structuralism, post-structurism) in design concept, the other, the adaption of high technology in building construction. In particular, the theory of languag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mergence of new tendency, which could be the alternative of modern architecture. Post-modernism and Typology in the 1960-70s, Deconstructivism in the 1980s and 'Folding' architecture in the 1990s, have continually borrowed a theoretical base from the theory of language. Placing the focus on the relation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theory of language with the interdisciplinary view, this study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diverse architectural tendencies since 1960 depend on the 'champ d'énoncé', which Michel Foucault, French philosopher, defined in his <Archéology du savoir>. The writings of many architects, like Robert Venturi, Micheal Graves, Aldo Rossi, Peter Eisenman, Rem Koolhaas, Bernard Tschumi, Gerg Lynn demonstrate our conclusion. This is an important finding which make possible consistent understanding about contemporary architecture.